

광주 상무지구 등 변화가 ‘한밤의 대란’

그 많던 택시, 어디에...시민들 ‘발동동’

거리두기 해제로 이용객 늘었지만 운전자는 줄어
배달 등 고수의 업종 변경...승객 골라잡기도 문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광주지역에서 뜻밖의 ‘택시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영업 제한 종료 등 본격적인 일상 회복과 함께 택시를 이용하려는 수요는 늘어났지만 코로나19로 지역 내 택시 운전자는 매년 줄어들며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분석된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광주지역 내 법인·개인택시 운전자는 총 7577명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2019년 2월 기준 택시기사는 8575명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7777명으로 줄어드는 등 동기 대비 11% (998명) 감소했다.

특히 법인택시의 경우 면허 대수가 3364대인 반면 운전자는 2788명으로 집계됐다. 발급된 택시 면허와 달리 576대의 택시는 운전자가 없어 차고지에 남겨져 있는 셈이다.

지역 내 운행되는 택시의 감소는 시민들의 불편으로 직결되고 있다.

실제 지난 9일 오후 11시께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길가에는 귀가를 위해 택시를

잡기 위한 시민들로 줄을 이었다.

시민들은 택시 휴대전화 앱(어플)만을 바라보면서 ‘빈차’표시가 켜진 택시를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북구 매곡동에 사는 직장인 이모씨(34)는 “회식이 마무리될 때쯤부터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여러 번 호출했으나 잡히지는 않고 대기 시간만 한없이 길어지고 있다”며 “집이라도 가까우면 걸어서라도 갈 텐데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김모씨(36)도 “요즘은 통 택시가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다”며 “일상이 회복되는데 이제는 귀가 문제”라고 토로했다.

일선 택시기사들은 이번 ‘택시대란’이 한동안 이어진 영업시간 제한 등의 영향

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던 운전자들의 다른 업종 변경, 택시 운전자 감소로 나온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택시기사 A씨는 “주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택시로는 생계가 힘들다며 다른 일을 찾아 간 경우가 많다”며 “배달 등의 일을 하는 게 택시보다 더 많이 버는 데 누가 택시 일을 하겠나”고 답했다.

20년 경력의 택시기사 B씨는 “거리두기 해제 이후 늦은 시간에도 호출 콜이 끊이지 않는다”면서 “지금까지 야간 운행을 안했던 것에 익숙해진 운전자들이 굳이 힘들게 다시 늦은 시간까지 운행을 안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택시 수요·공급 불일치로 인한 ‘승객 골라잡기’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장에서는 거리 등에 따른 탑승 거부

가 불가능하지만 카카오택시 등 휴대폰 어플을 통한 택시 호출·예약이 일상화되면서 이동 경로에 따른 ‘호출 선택’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지역 내 택시대란을 거리두기 조치 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거리두기로 택시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만 운행을 하다 퇴근하는 것이 익숙해진 기사들이 야간 운행을 하지 않다 보니 상대적으로 택시를 잡기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법인택시 기사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월산동 주민 ‘3-3 자원순환 실천’ 눈길

2·4번째 화요일 재활용 쓰레기 모아 현금 보상

광주 남구 월산4동 주민들이 ‘3-3 자원순환 마을 실천의 날’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10일 남구에 따르면 월산4동 주민들은 이날부터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화요일에 재활용 쓰레기를 동행정복지센터 앞에 한데 모으는 ‘3-3 자원순환 마을 실천의 날’ 운동에 들어간다.

‘3-3’은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 ‘다시 생각하기, 다시 사용하기, 다시 활용하기’ 등 3가지의 다시를 실천하는 삶이란 의미다.

이 프로젝트는 남구 자원봉사센터와 월산4동 행정복지센터간 협업에 의한 것으로, 폐기물 자원의 효율적 재활용 및 탄소 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주민 주도형 실천 활동으로 진행된다.

우선 이 운동의 중심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생활 폐기물의 전수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순환자원을 모은 주민들에게 그 가치만큼 보상을 해주는 ‘쓰레기 거래 플랫폼’이 자리를 잡고 있다.

최근 남구 자원봉사센터와 월산4동

행정복지센터는 동 행정복지센터 앞 순환자원 회수 로봇 기기를 설치했으며, 무인 회수기 설치·운영 업체인 ㈜슈퍼빈과 협약을 맺고 재활용 자원에 대한 현금 보상 지급까지 매듭을 지었다.

마을 주민들이 가정 및 일상생활 주변 장소에서 모은 투명 페트병과 캔 등 재활용 쓰레기를 순환자원 회수 로봇 기기에 넣으면 포인트를 제공한 뒤 추후에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이다.

‘3-3 자원순환 마을 실천의 날’은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가량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마을 주민들은 지정된 날짜 이외에도 재활용 쓰레기를 모으는 실천 활동을 수시로 전개할 수 있다.

월산4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재활용 회수 운동으로 주민들의 일상 속 실천 활동을 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 환경보호와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마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성국 기자 stare8194@gwangnam.co.kr



Y-SMU서구포럼과 함께 하는 ‘새마을준강데이’ 광주서구새마을회(회장 최덕환) Y-SMU서구포럼 회원들은 10일 광주천 양유교에서 광천2교까지 맑고 깨끗한 환경을 위한 ‘새마을준강데이’ 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산구, 미래세대 맞춤형 자원순환 교육

초·중학생 대상...체험키트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

광주 광산구는 지역 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눈높이 맞춤형 자원순환 교육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광산구는 자원순환 선도도시 실현을 위해 지난해부터 자원순환해설사들과 함께 지역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자원순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초등학교 25개교, 중학교 8개교 등 총 33개 학교 1만1942명이 신청한 가운데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몰입할 수 있는 다채롭고 특별한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해 교육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생애주기 맞춤형 교육을 위해 자

원순환 그림책·게임(앱)·체험키트(교구)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이론과 체험의 균형을 맞췄다.

질 높은 교육을 위해 2020~2021년 자원순환 교육·캠페인사업을 통해 배출한 시민 자원순환해설사 28명을 선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올해 자원순환 교육은 오는 12월까지 진행된다. 하반기에는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신청을 받아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

SOCIETY

2022년 5월 11일 수요일

나원참



남구, 재산세 사전안내 서비스

광주 남구가 올해부터 지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재산세 부과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

남구는 10일 “오는 7월에 고지하는 2022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반복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구는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세 신고를 위해 구청을 방문할 때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으며, 상속·증여 등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자 지정 통보 등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최성국 기자 stare8194@gwangnam.co.kr

신고번호 광주 서구 국내 09-0005호

만남, 당신에 이상형!

바로연

에서 인연을 만나다.

초혼·재혼 결혼전문업체

1644-5432

